

월요논단



김 동 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절해고도로 인식되던 제주도가 한 해에 관광객 1600만명이 찾아오고, 70만 주민이 거주하는 곳,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꽤나 북적이는 섬이 되었다. 관광객도 인구도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특히 관광객 1600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 관광지인 하와이, 발리, 오키나와 등 지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관광객과 인구가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날까? 그럴 수도 없겠니와, 그래서도 안 된다. 지금 수준에서 10% 이내의 증가 정도만 예측하는 정도의 선에서 모든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바닷길을 살려야 제주가 산다

마땅하다. 최근 계속되는 쓰레기 문제야말로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관광객과 인구가 거의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청정제주를 표방하는 섬에 쓰레기가 넘치고 악취가 진동하고 차량과 건물들로 더 복잡해진다면 누가 찾아오고 누가 살겠는가? 관광객과 주민 수가 최대치에 육박한 것이라면 제2공항은 당연히 불필요하다. 뻔히 예측되는, 그리고 더 이상 허용해서도 안 되는 인원의 수용을 위해서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면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절대 안 될 일이다. 사람들은 지금 제주국제공항이 혼잡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제2공항 신설 없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우선 청사를 적절히 증·개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김포공항이 매우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뀌었음은

시사하는 바 크다. 제주공항도 장기적 안목에서 획기적으로 청사의 증·개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급한 일은 바닷길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섬이 지닌 장점은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것인데, 교통분야에서는 그러한 특장을 제주도가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더 빨리 오갈 수 있는 비행기가 드나들면서부터 제주도는 해상교통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10년 전쯤에 제주벃길이 늘어나면서 꽤나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2014년 세월호 사건 후로는 많이 줄어들었다. 제주도 당국에선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돌이켜보면, 제주에 저가항공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양대 항공사 중심의 벽을 제주도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깨트린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당국이 주도한 제3항공사 추진은 잇따른

저가항공 취항을 끌어내면서 오늘의 16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끈 주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해상교통도 제주도당국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추진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루빨리 이를 담당할 도청의 부서를 확대한다거나 특별 기구를 설치한 연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벃길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지난 8월 8일은 제1회 ‘섬의 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섬에 다리만 놓으려 하는가”라면서 “풍랑주의보가 내려도 다닐 수 있는 3천 톤 급 전천후 여객선 취항”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박 군수의 말을 이렇게 바꿔보자. “왜 제2공항만 만들려고 하는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제주벃길을 많이 만들자!”

열린마당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하게 받고 납부하자



오 상 열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지방세가 부과되면 가장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다. 종이고지서의 송달이 대부분 우편송달인 관계로 고지서 분실 및 정확한 송달이 힘든 점도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로 기존에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납세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걱정도 없는 장점이 있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혹은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금융결제원 등 13개)에서 간편하게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모바일 앱은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500원 세액공제 혜택을, 지방세 자동납부와 함께 신청 시 추가로 5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 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방세도 통신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처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나 행정시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하며, 대상 카드는 제주, NH, BC, 삼성, 롯데, 하나, 신한, 국민, 전북 카드이다.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하여 성실한 납세의식을 실현해 보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환경자원총량제 자료 비공개 전환 빈축

“도와 용역진 비공개 협의”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 중간 보고회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비난을 자초. 취재진이 도청 주무부서에 항의하자 “제주도와 용역진이 비공개 키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 주변에서는 “환경자원총량제는 훼손된 가치만큼 자연을 복원하는 사업인 반면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이권이 분분한 제도”라며 “도입과정 비공개는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밀실 행정의 앞은 수”라고 힐난. 이소진기자

어린이 등하굣길 대책 시급

○…제주시가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캠페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 시는 지난달 30일 개학기를 맞아 노형초등학교 등 에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전한 보행방법과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을 홍보했으나 연미마을 초등생들은 365일 인도가 없는 차도로 등하하고 있는 실정. 한 학부모는 “보행자 도로 확보를 요구했으나 수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 고대로그자 민속박물관장 전국 5명 응모 ○…제주도가 임기 만료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일반직 4급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전국 공모한 결과 총 5명이 응모. 지난 8월 22~28일 원서 접수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도내 1명, 도외 4명이 응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9월말쯤 결과가 나올 전망. 앞서 제주도는 공석중인 제주현대미술관장을 5급 상당 학예연구관으로 전국 공모했는데 도내 1명, 도외 6명이 응모했고 금주에 면접을 벌여 9월 5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전선희기자

사설

가을장마 지속, 농작물 피해 우려된다

최근 제주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 흔치 않은 가을장마가 덮친 겁니다. 가을장마는 보통 8월 말에서 10월 사이 중국 쪽으로 올라간 장마전선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부딪쳐 한반도를 지날 때 비를 동반하는 기상현상입니다. 단순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며칠간 이어지면서 생육중인 농작물은 물론 파종을 못한 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가을장마로 인해 4일동안 한라산 삼각봉에 4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 한라산 영설 436.5mm, 머리목 39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관측지점의 누적 강수량은 제주시 189.7mm, 서귀포시 236.2mm, 고산 261.5mm, 성산 291.2mm입니다. 그런데 나흘간 내렸던 비가 잠시 멈춘 후 다시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가을장마가 제주도 주변에 정체전선을 형성해 1일부

터 7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가을장마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노지 채소재배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러잖아도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내린 비로 농경지 침수 등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 서부지역에서는 감자, 성산읍과 제주시 구좌읍 등 동부지역에선 당근이 물에 잠겼습니다. 파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90% 이상 이뤄진 당근을 제외하면 월동무·양배추·브로콜리·콜라비·마늘·감자 등의 파종 및 정식작업은 대부분 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파종·정식작업이 한창 이뤄져야 할 시기인데 늦어진 겁니다. 특히 파종이 예년보다 늦어 한겨번에 작업이 몰릴 경우 일손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을장마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급감하는 골프관광객 대책 서둘러야

제주지역 골프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골프장업계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면제하던 제주지역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면서 제주 골프관광의 경쟁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해 7월말까지 제주지역 골프장을 찾은 다른 지방 관광객과 외국인은 58만7000여명으로 전체 내장객 115만5000여명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장객이 60%를 넘던 2012년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골프관광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이는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가계 경쟁력에서 다른 지방이나 동남아 상품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 골프장 입장요금(1인당 그린피, 회원제기준) 평균은 주중 15만7710원, 주말 19

만9630원으로 제주지역 주중 13만8180원, 주말 17만9030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은 주중 12만3350원, 주말 16만5600원 보다는 오히려 비싼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 연합상품(1박2일, 36홀)의 경우 39만9000원, 내륙지역 리무진 상품은 33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하이난 상품(4박6일,114홀)은 한시상품이기는 하지만 49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라오스 골프상품(4박6일, 72홀)도 89만9000원대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발품을 팔아가며 국내 골프박람회에 참가해 홍보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골프관광객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캐디·카트 선택제와 부대비용 경감 등 골프장 업계의 자구 노력과 함께 개별소비세 감면 부활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 고

문군석(NH농협은행 남문지점장) 아버지 남평문공 공성(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31일 13시 3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9월 2일(월)
▶발인일시: 2019년 9월 3일(화)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문군석 며느리 김옥심
기 석 이성옥
딸 문금란
경희
손 자 문동환 손 녀 문정미
진환 박정연
정환 오현서
박범진

※ 연락처 : 문군석 010-2690-8871
문기석 010-8807-9831
문금란 010-5248-6688

부 고

전주이공 옥형(前 제주도체육회 사무국장, 現 제주도체육회 고문) ·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31일 19시 24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19년 9월 2일(월)
▶발인일시: 2019년 9월 3일(화) 오전 7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김 소 애
딸 이 혜 순
이 혜 련
이 혜 영
사 위 김 광 주

※ 연락처 : 이혜련 010-9946-0096
이혜영 010-7999-362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상형(향년 6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일
부 인 홍복희
아 들 이동진 며느리 주윤정
이동훈 임혜주
딸 이지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행자(향년 7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일
남 편 문인화
아 들 문성석
딸 문현숙
정신
정숙
미숙
며느리 오유경
사 위 송원경
김영돈
김학구
김인중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청주한공 재철(향년 7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일
부 인 김 미 형
아 들 한 정 용
딸 한 지 연
사 위 백 명 석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공산김공 태하(향년 8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일
부 인 김형숙
아 들 김순호
순주
순기
순영
며느리 한경임
오명숙
고민경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동준(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일
부 인 김희춘
아 들 김종철
종훈
종희
딸 김순희
정희
윤희
며느리 강경숙
오영지
고경희
사 위 박영수
김동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임설자(향년 8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2일
아 들 한승배
봉훈
태훈
딸 한혜선
금선
며느리 박춘자
김향란
사 위 부동석

분 실 공 고

●분실물 :
임대차 연장계약서
(7월 8일 발행)
대정읍 에듀시티로 102
131동 202호(한신 더휴)
상기 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분실물에 대한 무효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위 공고인 강 미 소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